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| | |
|---|---|
| □ APM Terminals의 경영전략 | 2 |
| □ 필리핀, ICTSI 파키스탄 카라치항 운영사 PICT 지분 35% 인수예정 | 3 |
| □ 케냐, 항만당국 몸바사항 확장 개발 계획 | 4 |
| □ 필리핀, 다바오(Davao)항 민영화 운영 입찰 계획 발표 | 5 |

□ APM Terminals의 경영 전략

- APM Terminal은 2011년 Maersk Line이 선박과잉과 운임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달리, 649백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여, AP Moller-Maersk Group의 3대 핵심 산업(Terminal, Oil, Offshore Supply)으로 각광받고 있음
 - APMT는 실적 기준 세계 4번째 GTO로서, 세계 55개 터미널과 154개 내륙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
 - 2011년에는 Equity 기준 전년 대비 8% 증가한 33.5백만TEU(유럽 12.2백만, 아시아 10.6백만, 아메리카 6.9백만, 아프리카/중동 3.8백만)를 처리함
- APMT의 이러한 성과는 운영 효율성 강화,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, 수익성 높은 터미널의 인수 및 내륙서비스 강화에 기인하고 있음
 - 특히, 세계 Big-4 GTO(PSA, HPH, DPW, APMT)의 하나로써 타 GTO와 동일하게 '고성장 시장(High-growth market)'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수익창출에 큰 기여를 있음
 - APMT는 세계 항만시장을 고성장 시장과 성숙시장(Mature market)으로 구분하고, 고성장 시장에서는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보에 집중하고, 성숙시장에서는 선박의 대형화,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하역생산성 증가, 서비스 제고 등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데 집중함
 - 최근 APMT는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22,000TEU급 선박 투입에 대응(실제 항로 투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됨)하기 위한 터미널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
- 따라서 최근에도 고성장 신흥 시장에 대한 시설 확장, 지분 인수 및 신규 시설(Greenfield)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
 - 2011년: 3월 페루 Callao 북측 터미널의 30년 운영권을 확보, 4월 그루지아 Poti 터미널 지분 80% 인수, 10월 스웨덴 Gothenburg 터미널의 25년 운영권 확보 등
 - 2012년 : 터키 Izmir 신규 터미널(하역능력 1.5백만TEU) 건설, 코스타리카 Moin 터미널의 33년 운영권 확보, 멕시코 Lazaro Cardenas의 32년 운영권 확보
 - 특히, Moin 터미널과 Lazaro Cardenas 터미널은 설계, 금융, 건설, 운영, 유지·보수 등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
- GTO 전체적으로 전 세계 물동량 증가세 둔화(향후에도 10년간 연평균 6% 소폭 성장 전망)에도 불구하고 APMT는 자발적인 운영구조 개선, 신흥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주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 - 이에 따라 APMT는 향후 5년간 200백만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,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2.3.5; 2012.4.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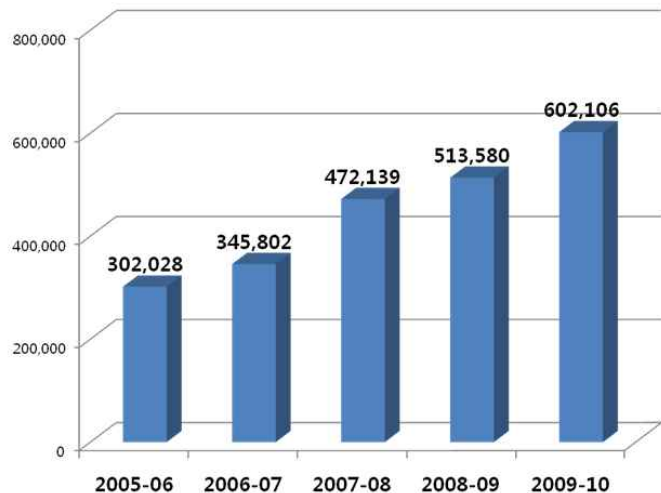
□ 필리핀 ICTSI, 파키스탄 카라치항 운영사 PICT 지분 35% 인수예정

- 필리핀 ICTSI가 간접적으로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CTSI Mauritius가 파키스탄 카라치항에 위치한 PICT(Pakistan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Limited)의 지분 35%를 공개매수하기로 주식매입계약서에 지난 3월 30일 서명하였음
 - 3월 6일, ICTSI는 시티은행 카라치 지점의 자문을 받아 ICTSI Mauritius를 통해 PICT의 지분을 35~55%까지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필리핀 증권 거래소에 공시한 바 있음
 - ICTSI Mauritius는 파키스탄의 기업인수법(Takeover Law)에 따라 결정된 최저 입찰가(minimum offer price)로 인수하되 공개매수는 파키스탄 관련부처의 승인, PICT 대출기관과의 합의 등 각종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며, 18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함
 - PICT는 카라치 증권 거래소(Karachi Stock Exchange) 상장기업으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75만 TEU이며, 2011년에 전년도 대비 11% 증가한 669,806 TEU를 처리하였음
- ICTSI사는 나이지리아 Lekki항 개발 및 운영권 부여에 대한 MOU 체결(3.14 발표), 폴란드 그드니아항 투자확대(3.30 발표)¹⁾ 등을 발표하며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- ICTSI 그룹의 2011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6.1% 증가한 6억 6,500만 달러이며, EBIT(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)은 전년대비 13.6% 증가한 2억 1,300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32% 수준임

< 카라치항 위치 >



< PICT 처리물동량(TEU) >



자료 : www.pse.com.ph 2012.3.6~4.2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1, jmsong@kmi.re.kr)

1)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46호 참조

□ 케냐, 항만당국 몸바사항 확장 개발 계획

- 케냐 항만당국(Kenya Ports Authority, KPA)은 수년전부터 몸바사항(Mombasa port) 확장 및 현대화에 대한 압력을 받아 왔음
 - 이에 몸바사 섬 서쪽에 위치한 킬린디니항(Kilindini Harbour) 준설이 그동안 추진되어 마침내 4개월 내 완료될 예정
 - 이 준설 작업은 수심 15m, 폭 500m 규모이며, 네덜란드 회사인 Van Oord 의해 수행
 - 금번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대형 선박을 수용하는 항로가 정비될 것으로 전망
- 관계자에 따르면, 케냐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형 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화물 처리 시설을 충분히 구축할 예정임
 - 또한 최근 MSC의 가장 큰 선박이 입항한 킬리니항에 금주에 1,712TEU를 하역하고 3,950TEU를 선적할 것으로 예상
- 한편 몸바사항은 과거 선석길이 200m 규모로 2,000TEU급 선박을 처리하였으나, 준설 완료 후 최대 4,500TEU까지 선박을 수용할 전망이다

< 몸바사항 위치 >



< 몸바사항 전경 >



자료 : www.dredgingtoday.com, 2012. 4. 9

황현주 연구원(02-2105-2897, julya7@kmi.re.kr)

□ 필리핀, 다바오(Davao)항 민영화 운영 입찰 계획 발표

- 필리핀 항만청(PPA)는 2013년에 다바오(Davao)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민영화하기로 발표하였음
 - 앞으로 2~3개월 이내에 벌크 화물처리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내에 컨 터미널 운영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
 - 그러나 현재 운영사인 DIPSSCOR과의 운영계약이 2016년 완료되기 때문에 2013년에 입찰을 완료하고 새로운 운영 계약시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- 본 입찰은 필리핀 국가경제발전국(Neda)을 통해서 진행될 것임
- 다바오항은 연 7-10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설치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항만운영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함
 - 시설 장치 및 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선박들이 평균 40시간에서 최대 2일 까지 기다리며 병커 주유시에도 지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지적
 - 이에따라 다바오 항의 현재 처리능력 70만 TEU를 향후 5년 이내에 120만 TEU로 증대시킬 것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키로 고려함
 - 지난해1월-10월까지 다바오항은 446만톤의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478,894 TEU를 처리하였음

< 다바오(Davao)항 위치 >



< 다바오(Davao)항 전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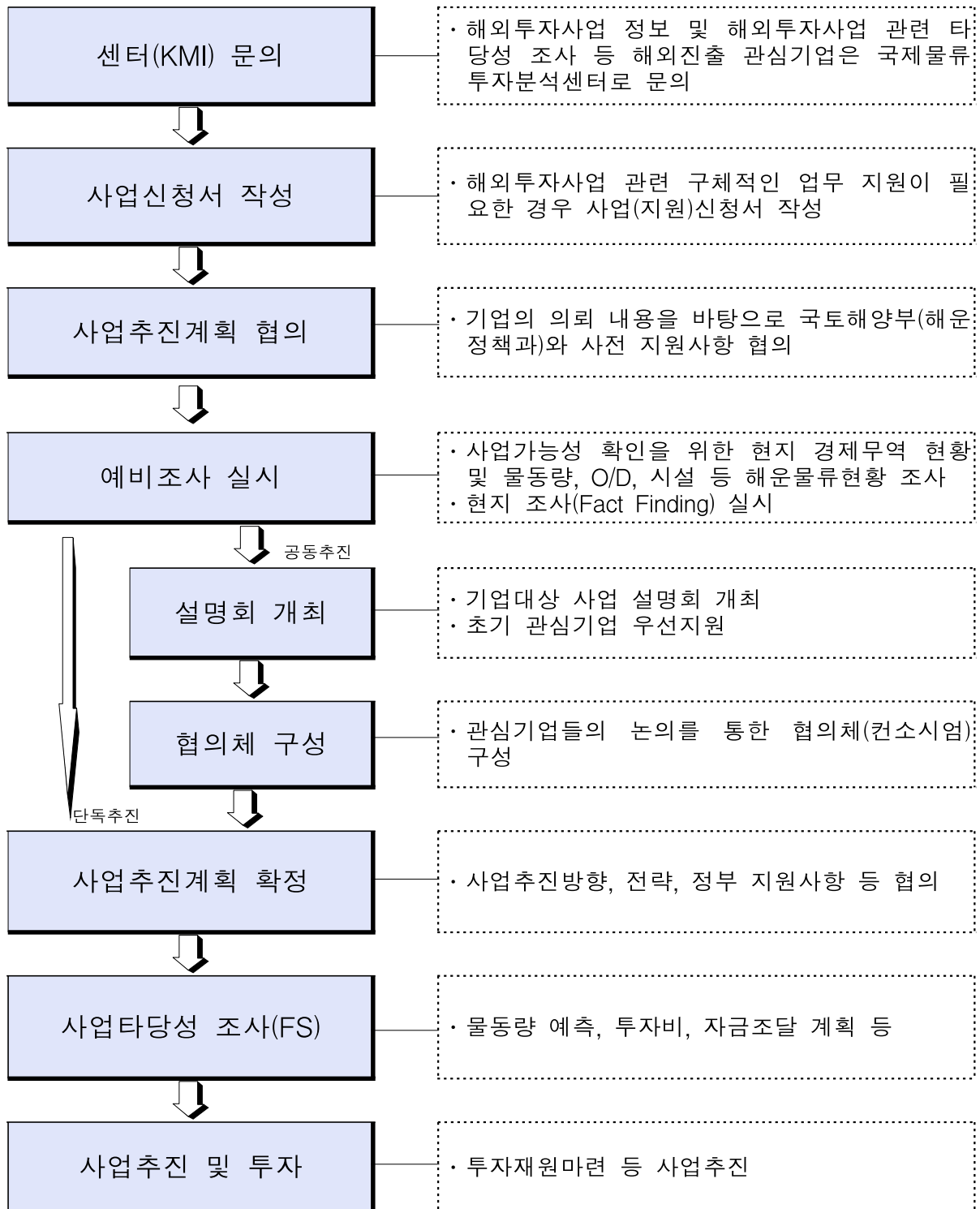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필리핀 항만청, 2012.4

자료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2012.4.10

전혜경 연구원 ☎ 02-2105-2982, saei@kmi.re.kr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